

TV 2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00 굿모닝채널A 1~2부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00 MBC창시특별기획 코이카의 꿈 스페셜 <세내갈 1>	00 출발! 모닝와이드 1~2부
07	50 인간극장		00 MBC 뉴스 10 김경 특별한세상 스페셜 50 MBC 아침드라마 <위험한 여자>	05 KBC 뉴스지금 30 출발! 모닝와이드 3부
08	00 너는 내 운명 스페셜(재) 50 생방송 김성주의 모닝카페	25 아침이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09	50 수목미니시리즈 <총각네 아내가게>(재)	30 KBS 뉴스	00 TV 소설(복희누나) 40 여유만만	35 기본 좋은 날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TV 동화 행복한세상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TV 동화 행복한세상	50 지구촌 뉴스	10 좋은아침 30 SBS 뉴스
11	00 이수근의 버려드립니다(재)	00 즐거운 책 읽기 55 버려달고운말	10 스포츠 타임 20 TV 특강(재)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2	00 채널A 뉴스와 경제 20 여행이 좋다(재)	00 KBS 뉴스12	00 스타 인생극장(재)	00 SBS 12 뉴스 30 테마스페셜(재)
1	20 김수미의 소꿉(재)	00 설 기획 한국재발견(재)		30 도전! 슈퍼대디(재)
2	30 너는 내 운명 50 슈퍼 두더지(재)	00 KBS 뉴스 10 설특집 디큐 세남자의 꿈 아버지(재)	10 의뢰인 K(재)	50 키즈 언더버너 베스트
3	50 이산가족 공동 프로젝트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10 설 특집 로디디큐 고향 품(재)	00 KBS 뉴스타임 05 유로링 동물탐험(재) 35 달의 신나는 우주여행(재)	45 집, 그곳에 살다
4		00 KBS 오늘의 경제 10 2012 겨울방학특집 <과학콘서트 4부작>	00 TV 유치원 30 오후의 초록가방(재)	00 우리 아이 뇌를 깨우는 101가지 비밀 베스트 30 보글보글 2
5	00 박중진의 시사토크 <쾌도남자>	00 KBS 뉴스5 20 제19대 총선 정책특집 연설 <민주통합당> 40 남도지오그래피	00 사랑의 가족	00 문화이색
6	00 채널A 뉴스네트워크 20 잇사남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시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 정보통 1~2부	00 세계다큐기행 50 고향을 부탁해
7	20 너는 내 운명 40 스토리텔링 매직쇼	00 KBS 뉴스7 30 한국인의 밥상	45 스타 인생극장 <김남일 김보민 부부>	45 일일시트콤 <하이킥! 짧은다리의 역습> <내일 꽃님이>
8	50 수목미니시리즈 <총각네 아내가게>	25 일일연속극 <당신 뿐이야>	20 세계는 지금 55 호루라기	15 일일연속극 <오늘만 같이> 55 MBC 뉴스데스크
9		00 KBS 뉴스 9	55 수목드라마 <난폭한 로맨스>	20 건강적색경보 SOS <치통> 50 수목미니시리즈 <해를 품은 달>
10	00 뉴스A 50 컬러 오브 우먼(재)	00 역사스페셜 50 아름다운 사람들		55 드라마스페셜 <부탁해요 캡틴>
11		00 KBS 뉴스타임 40 현상프로 동행	05 해피투게더	15 주병진 토크 콘서트
12	00 뉴스&스포츠 20 박중진의 시사토크 <쾌도남자>(재) <1> 20 김수미의 소꿉(재)	25 KBS 뉴스 35 콘서트 필2	15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நட목의 발견	30 MBC프리뷰 <新문화혁명 모든 삶은 예술이다>
				25 나이트 라인 45 한국외교 스페셜(재)

설 연휴 극장가에 국산영화 흥행 돌풍 불었다

'댄싱퀸' '부러진화살' 박스 오피스 매출 점유율 1·2위

지난 설 연휴 극장가에서는 '댄싱퀸'과 '부러진 화살'이 흥행 돌풍을 일으켰다. 25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 20~24일 황정민·엄정화 주연의 '댄싱퀸'은 전국 535개관에서 110만 4390명(매출액 점유율 24.6%)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했다. 지난 18일 개봉한 이 영화는 6일 만에 관객 100만 명을 돌파했으며 현재 누적관객수 122만 8884명을 기록하고 있다. 설을 앞두고 개봉한 영화 중 유일한 정통 코미디 영화였던 '댄싱퀸'은 특히 가족, 성인 관객들에게 사랑받으며 '명절엔 역시 코미디'라는 공식을 확인시켜줬다. 반면, 다소 무거운 소재를 다룬 영화 '부러진 화살'도 기대 이상의 흥행몰이를 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부러진 화살'은 같은 기간 456개 관에서 81만 3532명(18.1%)을 동원, 박스오피스 2위에 올랐다. 지난 18일 개봉한 이 영화는 1주일도 안 돼 손익분기점(50만 명)을 넘어섰으며 현재 누적관객수 90만 6895명을 기록, 100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댄싱퀸'과 '부러진

화살'은 매출액 점유율 합계 42.7%를 기록하며 설 연휴 한국영화의 압도적인 강세를 이끌었다. 이어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2: 신비의 섬'이 398개관에서 66만 3152명(16.7%, 누적관객수 70만9387명)을 모아 3위에, 애니메이션 '장화신은 고양이'가 450개관 56만 6천796명(13.9%, 누적관객수 147만9143명)으로 4위에 올랐다. '미션 임파서블: 고스트프로토콜'은 292개관에서 31만 3천70명(7.2%)을 모아 5위로 전주보다 세 계단 떨어졌으나, 누적관객수는 734만 8712명을 기록해 역대 외화 흥행 4위인 '트랜스포머 2'(739만 명)의 기록에 바짝 다가섰다. 이어 김명민 주연의 '페이스 메이커'가 26만 7281명(5.8%, 누적관객수 333천677명)으로 6위, 임태웅·정려원 주연의 '내버린딩 스토리'가 15만5914명(3.4%, 누적관객수 20만6311명)으로 7위에 올랐다. 이밖에 '우리는 동물원을 갔다'(15만2712명, 3.2%), '말레니엄 : 여자를 증오한 남자들'(7만9487명, 1.9%), '원더풀 라디오'(5만 6873명, 1.2%)가 10위 안에 들었다. /연합뉴스



<댄싱퀸>



<부러진화살>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26일(음 1월 4일 丙戌)
子	36년생 주머니가 가벼워지면 마음은 무거워진다. 48년생 말조심 하지 않으면 구설을 자초한다. 60년생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된다. 72년생 경계당혹하다 큰 손재가 보인다. 84년생 우연한 일지로 손조를 맞게 떨어진다. 행운의 숫자 : 40, 76
丑	37년생 자존심을 내세우다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49년생 직접 챙기지 않으면 빈틈이 보인다. 61년생 과욕하면 실패하니 조심 하 지행하라. 73년생 진정한 삶을 지향하고 싶거든 불타는 영혼을 버려라. 85년생 마음껏 웃는 날이다. 행운의 숫자 : 90, 24
寅	38년생 뒷물이 맑아야 야망도 맑아지는 법이다. 50년생 상대 방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62년생 상대에게 명백한 과실을 지적해 주어도 반감을 가질 수 있다. 74년생 서로 협상해 나가면 무탈하리라. 행운의 숫자 : 96, 45
卯	39년생 남이 하는 구색을 다 맞추다 보면 대의를 도모하기 힘들다. 51년생 즐거운 일이 생길 수다. 63년생 소신을 가지고 행해야 비전이 보인다. 75년생 의미 없는 일로 다투어 봤자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05, 02
辰	40년생 매우 커다란 경사가 있다. 52년생 힘이 드는 하루가 펼쳐지리니 각오하라. 64년생 어느 때보다도 자기 관리에 충실해야 할 때이다. 76년생 평소엔 신뢰를 쌓아 놓으면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56, 91
巳	41년생 맑은 정신은 건전한 마음과 활기찬 건강을 이끄는 나이다. 53년생 부담스런 일이 기다리고 있다. 65년생 목적이 부합하지 않으면 빨리 청산하는 것이 좋다. 77년생 결보기에는 불품없으나 실속은 있다. 행운의 숫자 : 12, 11
午	42년생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도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하라. 54년생 이용당할 수 있다. 66년생 자기 극복을 통해 방만한 마음과 나태함을 배제해야겠다. 78년생 소신이 있다면 단호한 결단을 내려라. 행운의 숫자 : 97, 07
未	43년생 운명을 개척하려고 하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다. 55년생 큰 행운의 바다로 나가고 있으나 배가 좌도다. 67년생 지극히 소중한 것들을 망각하며 살아 갈 수 있다. 79년생 말이 많다면 실수도 따른다. 행운의 숫자 : 74, 18
申	44년생 남에게 선을 베풀어 주는 자신에 대해서도 선을 베풀어 주어야 한다. 56년생 모든 일이 편안하다. 68년생 번덕이 매우 심한 사람과 함께하면서 매우 피곤하겠다. 80년생 뜻대로 진행되지만 실속은 약하다. 행운의 숫자 : 99, 02
酉	45년생 성사시켜야 한다. 57년생 협조자의 도움이 있으나 언제까지지지는 모른다. 69년생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81년생 측근이 불려와 하고 있으니 잘 보살피라. 행운의 숫자 : 35, 09
戌	46년생 추진하다 보면 활보가 개척될 것이다. 58년생 다소 불편해지더라도 의연히 대처하라. 70년생 열치와 체면은 상호관계에 있어서의 균형을 유지해 주리라. 82년생 일에 활기가 띠어 재물 운이 왕성해진다. 행운의 숫자 : 16, 67
亥	47년생 백 마디의 말이라도 단 한 번의 실행만 못하다. 59년생 지출은 투자가 되리니 너무 아까워하지 마라. 71년생 반드시 끝까지 마무리 지어야 좋다. 83년생 문서를 검토하다 보면 특이점을 찾아내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68, 20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행운!" ☎010-9790-8237

EBS	
06:00 극한직업	10:00 최고의 요리비결 <임종연의 우리가족 든든한 김치전골과 조개젓 무침>
06:30 미래직업 또는 직업	10:30 60분 - 부모
07:00 오스카의 오아시스	11:30 이빠 놀이줘요
07:10 제로니모의 모험	12:00 EBS 정오 뉴스
07:35 꼬마기관차 토미스와 친구들	12:10 TV일일시정판
07:45 뽀롱뽀롱 뽀로로	13:00 초등 2년 방학생활
08:00 뽀롱뽀롱 유치원	13:20 초등 4년 방학생활
08:20 꼬마버스 티오	13:40 초등 6년 방학생활
08:35 한글친구 아리차	14:00 지식채널e
08:40 깨피	14:10 교육기획다큐멘터리 <학교 300일간의 기록>
09:00 방구대장 뽀롱이	
09:10 부릉부릉 브루미즈	
09:25 똑똑똑똑 밥이저씨	
09:40 변신로봇5	

  

EBS플러스1	EBS플러스2
00:00 2011 수능열기 <외국어> 12:10 <영어>	08:00 9급 공무원 시험대비 <실전특강> 16:00 초등 6년 겨울방학생활 <사회> 16:20 Gra Gra Grammar(3)
00:50 <이창주의 수학II> 13:00 <외국어>(재)	08:30 경비지도사 시험대비 <사회> 16:40 Spy Zone(4)
01:40 <심주석의 수학 I> 13:50 잊혀져 가는 것들 II <영어>(재)	09:50 <과학> 17:00 Cyber Tales(5)
02:30 <언어> 14:00 2012 수능열기<이창주의 수학II>(재)	10:30 종2예비과정 <역사>(상) 17:20 동물일기 <수학2-1>(재)
03:20 2012 수능김집이 <비문학> 15:00 <심주석의 수학 I>(재)	11:10 <과학> 17:50 종2 예비과정1 <수학2-1>(재)
04:10 <이민형의 수학 I> 16:00 <언어>(재)	11:50 <사회>(재) 18:30 " 2 <수학2-1>(재)
05:00 <김세식의 수학II> 17:00 2012 수능김집이 <비문학>(재)	12:30 <과학>(재) 19:10 " 3 <수학2-1>(재)
05:50 <황성록의 기하와 벡터> 18:00 <이민형의 수학 I>(재)	13:10 중학국어문법 19:50 종2 예비과정 <과학>(재)
06:40 <이서준의 미적분과 통계기분> 19:00 <김세식의 수학II>(재)	13:50 종2예비과정 <역사>(상) 20:30 종3 예비과정 <사회>(상)
07:30 <유승철의 적분과 통계> 20:00 <황성록의 기하와 벡터>(재)	14:30 초등 6학년 영어 Ready Set Go 21:10 <과학>(상)
08:20 2012 예비고 <국어> 21:00 <이서준의 미적분과 통계기분>(재)	14:50 EBS 클럽뱅크 21:50 종2 예비과정 <과학>(상)
09:10 2012 수능김집이 <영어독해 유형편> 22:00 2012 예비 고1 <국어>(재)	15:10 창의기 반복! 22:30 중학국어문법(재)
10:00 공부의 왕도 <영어> 23:00 2012 수능김집이 <영어독해 유형편>(재)	15:20 초등 2년 겨울방학생활 <과학>(사)
10:30 학교 300일간의 기록 <영어독해 유형편>(재)	15:40 초등 4년 겨울방학생활 <과학>(사)
11:20 2012 예비고1 <이미지의 수학> 23:50 EBS 학습자료실 <수학II>(재)	

굿모닝 잉글리쉬	한자이야기
<p>You must be pulling my leg. 당신 지금 농담하는 거죠?</p> <p>A : Jina just asked me for a date! B : Really? Jina? A : Yes, the most charming girl in our country. B : Jina asked you? You must be pulling my leg.</p> <p>A : 진아 씨가 방금 저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B : 정말이예요? 진아 씨? A :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매력적인 아가씨 말이예요. B : 진아 씨가 당신에게 데이트 신청을? 당신 농담하는게 분명하군요.</p> <p>* pull one's leg = be kidding = be joking * charming : 매력적인</p>	<p>駙馬(부마) 결마 부, 말 마</p> <p>부마(駙馬)는 임금의 사위, 궁중의 남편을 이르는 말이다. 부마도위(駙馬都尉)의 준말이다. 옛날 중국의 농서 지방에 사는 신도탁(辛道度)이라는 젊은이가 있었다. 그는 우중(雍州)로 가는 도중 날이 저물자 근처 저택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그가 안방으로 들어가니 안주인이 들어와서 자신은 진(秦)나라 민왕(閔王)의 궁주로 조(曹)나라로 시집갔다가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지냈는데, 자신을 찾아주었으니 부부의 인연을 맺어 달라고 간청하였다. 이에 들은 부부의 인연을 맺었다. 그러나 나흘째 되는 아침, 그녀는 갑자기 이별해야 한다고 하며 정표를 금 베개를 주었다. 신도탁은 금 베개를 받고 대문을 나서서 뒤를 돌아보니 집은 온데간데없고 잠조차 무성한 허허벌판에 무덤 하나만 있었다. 이후 그는 금 베개로 음식을 사 먹었는데, 우연히 금 베개를 발견한 왕비는 그를 잡아와 문초하였다. 그가 자조지종을 이야기하니 왕비는 "죽은 지 23년이 지났는데도 산 사람과 부부의 인연을 맺으니 당신이야말로 진짜 내 사위이다. 내 그대를 부마도위에 임명하겠다."라고 한대서 유래하였다.</p> <p>[출전] 간보(干寶)의 &lt;수신기(搜神記)&gt;</p>
<p>&lt;동아 외국어학원&gt; www.donga.tv ☎ 222-6253</p>	<p>&lt;대능교육&gt; www.daeneungedu.com ☎ 02-2634-2007</p>

신비림 애동제자 **박은영**으로 신령님의 영검하심을 사원하게 전해드립니다. **작두 여장군 연화사** 010.5523.0510 062)675-0510

니하오 풍구위	오하오우 니혼고
<p>黑名單 hēimíngdān 블랙리스트</p> <p>우리가 영어 그대로 블랙리스트(blacklist)라고 부르는 것처럼 중국어는 의역하여 '검은 명단(黑名單)'이라고 표현합니다. 작년에 TV 출연 중인 이들이 자주 '블랙리스트'란 용어를 언급했지요. 정권이 믿보여 출연금지 블랙리스트에 올려졌다는 등의 끼리끼리 말이죠.</p> <p>블랙리스트(blacklist)는 1649년 영국의 청교도혁명 당시 찰스 2세가 아버지의 사형을 집행한 58명의 재판관 명단을 작성하면서 유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시대에서는 왕권을 둘러싼 세력 다툼에서 제거되어야 할 이름을 적은 것을 '살생부'라고 합니다.</p>	<p>先生、どうしたんですか。 선생님 무슨일이십니까?</p> <p>A : 先生、どうしたんですか。 B : 買ったばかりのラジカセが、動かないんです。 A : 故障かも知れませんが、買った店へ連絡します。 B : すみません。お願いします。</p> <p>A : 선생님 무슨 일이십니까? B : 산지 얼마 안 된 라지카세트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A : 고장인지도 모르니까 산 가게에 연락 하겠습니까. B : 미안합니다. 부탁합니다.</p>
<p>&lt;리틀치이나 중국어 전문학원&gt; www.littlechina.co.kr ☎ 233-9582</p>	<p>&lt;아스카 일본어 전문학원&gt; http://www.kjasuka.co.kr ☎ 232-1503</p>